모든 차이를 무력케 하는 요소

(시편 117:1~2)

1.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2.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모든 차이를 무력케 하는 요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모든 차이를 무력케 하는 요소'
제가 직간접적으로 들어왔던 이야기를 해봅니다.
해외에 사시는 교포 2세나 3세는 겉만 한국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감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인도 여자를 데리고 오고, 딸은 프랑스 남자를 데리고 옵니다. 상대가 흑인인 경우도 있고 백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교포 1세대인 부모님들은 대체로 반대를 합니다. 완전히 편견을 벗어나지 못한 탓도 있지만 그나마 백인일 경우에는 반대가 약합니다. 그런데 모든 반대가 편견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실제로 가족이 될 때에 나타나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저만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된장이나 청국장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데 프랑스인 사위가 생겼다면 어떻게 식사를 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그쪽 문화권에서는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계시든 말든 웃통을 훌렁훌렁 벗어던지고 서로 좋다고 뽀뽀하는 일은 예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적인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사고나 세계관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강릉은 인구가 18만 밖에 되지 않는 소도시인데 동계올림픽 때문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북한까지 참여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만국기가 펄럭이고 산책을 나가거나 장을 보러 가도 온갖 나라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자인지 선수인지 관계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기저기에서 보입니다. 강릉에서 차타고 30분이 걸리는 평창에는 미국 NBC 기자만 2,800명이 와서 주둔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국 방송기자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미디어 건물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각기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았던 평창이나 강릉에 와서 3주간을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신기하기만 합니다. 90여 개국의 사람들이 모였으니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생활습관 등이 다릅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경기가 얼음판이나 눈 위에서 경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요소가 90여개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모든 차별과 차이를 무력화시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묶어주는 요소가 없다면 아무리 다양성을 존중하려고 해도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모든 차이가 차별로 변화할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시는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데 내포된 의미의 규모는 방대합니다.
본문은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찬양의 이유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밝힙니다. 인종이 다르고 종족과 문화가 다릅니다. 이렇게 이질적이고 다양한 백성들이 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해야 한다고 믿고 말할 수 있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선민의 나라인 유대 문화에 비해 세상의 문화들은 너무나 이질적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경상도 며느리보고 전라도 입맛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짓궂은 친척들이 경상도에서 시집온 며느리에게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잘 삭힌 홍어를 초장에 찍어서 먹으라고 주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나라의 하나님을 타민족에게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욕을 합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트집 잡습니다. 불교 신자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힌두교를 믿는 인도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중동에 사는 이슬람교도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실제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존중함이라고는 없다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불교신자에게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슬람교도나 힌두교 혹은 아프리카 오지의 민속신앙을 믿는 분들도 여호와를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와 인종과 민족에 상관없이 여호와만을 찬양해야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언급하면서 로마서 15장에서 오늘 1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9~13절을 읽어보면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때에 겪을 심리상태를 즐거움과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척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은 곧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가수들은 노래를 할 때에 자기 마음이 슬프더라도 불러야 할 노래가 기쁘면 기쁜 감정을 연기하고, 반대로 마음이 기쁠 때에도 슬픈 노래를 부를 때에는 슬픈 감정을 연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에는 이런 연기가 아닌 진짜 기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다면 찬양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모든 차별과 차이를 무력화시키는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리고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기쁨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관계 안에서 표현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사랑과 기쁨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지위를 말하고, ‘사랑과 기쁨’은 아들이신 예수님과 아버지이신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속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이나 17장에서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연인이 서로의 마음을 채워주는 관계인 것과 같습니다. 사랑할 때에 뒤따라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기서 사랑과 기쁨으로 규정되는 관계는 만국공통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원주민들도 사랑을 통해 기쁨을 얻습니다. 무엇인가가 그들의 마음에 채워져야만 합니다. 불교인이나 힌두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여당 야당으로 지지층은 다를지라도 그들이 맺는 관계의 특성이 사랑과 기쁨에 근거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심지어 사물과의 관계에 대해서까지 적용됩니다. 내가 돈을 사랑한다면 돈이 나를 채워주기 때문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만국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오늘 말씀은 결코 무지하고 경우에 어긋난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의 공통점으로서 사랑과 기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릉과 평창에 모인 90여 개국의 사람들이 올림픽이라는 하나의 공통점으로 어우러지는 것처럼, 기쁨과 사랑은 모든 인류의 차별과 차이를 무력화시키는 요소입니다.

모든 사람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채워지고 기쁨을 얻는 것이 존재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20세기 교부로 일컬어지는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것을 다른 피조물들에 비해 언어와 같은 우월한 속성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으로 해석합니다. 타당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사랑과 기쁨으로 규정하셨고, 인간 또한 관계에서 사랑과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가진 모든 차이를 무력화시키는 요소이고, 오늘 본문에서 만백성에게 하나님 찬양을 촉구하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드러납니다.

십자가에서의 죄사함은 이 세상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기쁨이 주어지는 사랑의 대상을 세상 안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오지의 원주민이든 문명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을 계속해서 찾게 됩니다. 죄는 바로 그 대상을 이 세상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음은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 바깥에 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인 이상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공백을 사랑을 통해서 채우고, 채워질 때에 만족과 기쁨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서 사랑에 목말라하던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끌고 올라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들은 문화나 종교 인종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모두 이 세상 안에 한정된 육체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바깥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바깥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육체에 근거한 차이와 차별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을 하는 것이 만국공통이지만 그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인종 문화 종교 습관 등의 차이에 의해서 차별은 생겨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상을 세상 바깥에 계신 하나님으로 소개하시고 정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대상으로서의 차이는 무력화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편에서 보았듯 하나님께서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받아들일 수 없도록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티끌에 티끌만도 못한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제공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인자하심이 크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 태양계와 같은 은하계가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은하계를 다 덮는 하늘이 있어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주의 티끌만도 못한 우리 인간 한 사람 속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신비로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진실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주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좀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달라는 등의 것들만을 구해왔습니다. 하늘들의 하늘도 감당 못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는데 그 십자가를 가장 크게 보기는커녕 아직도 이 세상 안에서 기쁨을 찾느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를 들어 한 여성에게 반해서 끝내 허락을 받아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사실 진실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와 결혼하면 행복 즉 기쁨과 만족에 대해서는 끝이 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3년을 같이 살고 나자 남보다 못해져서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을 벌면 만족하고 기쁠 줄로만 믿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을 위해서 채택하는 모든 대상들은 단 하나도 진실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건강도 출세 등도 모두 진실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크기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 못할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지음 받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를 채택할 때에 마음은 수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얻겠다는 생각에 바짝 긴장하고 쪼그라듭니다. 기쁨과 만족으로 여기는 것을 못 얻는다면 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육체가 있어야만 마음 채움 거리를 만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세상 바깥에 계신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운 자들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의 대상을 돈으로 채택하였다면 돈을 못 버는 상황이 곧 망하는 것이기에 가장 두려워하게 됩니다. 돈을 만족할 만큼 벌 때까지 마음은 항상 긴장상태입니다. 그러다 돈을 벌면 수축했던 마음이 채워져 만족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만족하면 이제 긴장하고 있던 마음의 수축력은 풀어지기 시작해서 원래 하나님의 크기대로 되돌아갑니다.
매머드 한 마리가 100일 동안 굶다가 땅콩 하나를 먹게 되면 어떨까요? 수축한 위장에는 그거라도 먹으면 만족할 줄 알겠지만, 먹는 순간 위장은 본래 크기를 되찾으려 합니다. 돈이 이 땅콩과도 같습니다. 더 많은 돈이나 다른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구할 때에는 마음이 또 다시 긴장하여 수축합니다. 그런데 얻는 순간 다시 원래 크기로 풀어집니다. 이러한 관계는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크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에는 '영원'이라는 시간적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어떤 것도 영속적으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속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을 주십니다. 영원

히 하나님을 마음에 채움으로 기뻐지는 상태가 곧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만국백성이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을 하며 살 수 밖에 없음을 전제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길을 따를 때에 문화나 인종이나 습관을 뛰어넘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이 세상에 대해 죽을 때에 이 세상 속에서 갖게 된 모든 차별과 차이까지도 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며 십자가를 전하게 하시고 그들과 내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며 영원한 기쁨을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